

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

화학산업 통계자료 부실의 "허와실"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하라면 흔히들 정보사회라고 대답한다. 전화나 FAX의 보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매스미디어를 넘어서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우리 곁으로 한발 다가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정보 유통이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회현상 자체가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는 현실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그것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구조 자체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가 양산되면서 관심있는 정보를 직접 취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설혹 가능하다고 해도 비능률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날이면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인 분류와 종합화를 거치지 않고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밖에 없으며, 복잡해지고 체중에 시달리는 교통지옥 아래서는 현실감있는 생생한 자료나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사회·경제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국제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내에 국한된 정보의 의미가 축소되고 저가치화할 수 밖에 없으며, Globalization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화학산업은 국제상황에 민감하고, 화학제품가격이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현실에서 국제정보에 어둡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쯤은 전문가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10년전이라면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는데 그쳐 국제정보의 필요성이 덜 절박했을 것이고 일부 수입관계자만이 그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필요성에 활력소 구실을 한 것이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이다.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산업은 근래들어서는 과히 혁명이라 칭할만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소형화·고집적화의 혁신에 따라 초고속으로 초대량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선진국 수준의 정보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발전이 더디어서 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욕구가 부족해서 인가. 기술발전이나 국민의식수준의 문제가 아닌 정보통신에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 구축의 한계 때문인 것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막히고 힘든 부분이 바로 자료 구하기가 어렵고, 입수한 자료 자체도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푸념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정부나 기업할 것 없이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례가 될 것이다. 그것도 기업비밀에 속하거나 정부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기밀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기밀로 취급하고, 자료공개를 거부시하며,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하는 그 관료주의적 병폐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학산업계도 마찬가지이다. 30여년의 역사속에서도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란 거의 없는 지경이다.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석유화학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 아닐런지...

화학경제연구원은 91년 창사이래 국내 화학산업 관련자료의 체계화를 꾸준히 추진, 93년 화학연감 출판에 이어 94년 화학기업편람을 출판한 바 있고, 올해는 CHEMINDEX를 제작중에 있다. CHEMINDEX는 영문판으로 화학제품별 생산기업 및 생산량, 수입처별 수입선·수입국·수입량을 체계화시키는 KOREA CHEMICAL BUYER'S GUIDE로 국내 화학산업의 화학제품 생산·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 국내 화학기업의 생산계획 입안 및 영업 그리고 외국 수요기업의 한국산 화학제품 구매 안내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의 국제화에 대처, 한국 화학

산업 통계 및 화학관련 생산·수출입기업 자료의 체계화에 화학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린다.

산업발전은 자료의 체계적 분류와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없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화학저널 1995/4/17>